

2023 VOL. 9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 목 차 |

01

특별기고

시작이 반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길 「아현중학교 신만섭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05
가치로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상동고등학교 한도희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07
배움을 위한 여러분들의 용기와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손찬희 본부장」	09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2
「목포중앙여중」 박경리 작가의 문학관을 다녀오다 • 송영희 기자	12
「광명중」 신나는 체육대회 • 객배숙 기자	13
「인천여고」 행촌예술제 • 강경화 기자	14
「춘천고」 아침고요수목원을 가다 • 최동순 기자	15
「남춘천중」 설레는 입학식 • 이순세 기자	16
「포항고」 대학을 향한 첫 발걸음 • 이상복 기자	17
「홍성여중」 마지막 수업 • 이은순 기자	18
「동래고」 50여년만의 수학여행 • 배창환 기자	19
「원주중」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졸업 • 김은옥 기자	20
「홍성고」 빛나는 졸업장 • 송기은 기자	21
「동래고」 부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 • 배창환 기자	22
「광주북성중」 광주북성중 축구부 운동복 후원 • 최지숙 기자	23
「경원중」 미술시간 수행평가 • 노순민 기자	24
「경남여고」 교정 • 박정순 기자	26
「포항고」 행동통통(행복·동행·신통·방통) 교내 학예경연대회 • 이상복 기자	28
「제주제일고」 교내 정화 활동 • 김혜경 기자	29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31
「경원중」 재주꾼을 만나다 · 노순민 기자	31
「춘천고」 국제기능올림픽 동메달 수상자를 만나다 · 최동순 기자	35
「원주고」 평창에서 통학하는 학우를 만나다 · 정순미 기자	38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41
「경원중」 더 넓은 세상을 보다 · 노순민 기자	41
「동래고」 고목에 꽃이피면 · 배창환 기자	42
「춘천고」 인연 · 최동순 기자	43
「홍성고」 평행선 · 김배숙 학생	44
수필	45
「경원중」 인생에도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 · 노순민 기자	45
「상동고」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 이순호 기자	46
「춘천여고」 이제 저도 춘천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 이영자 학생	47
「홍성고」 낡은 책가방 · 서문순 학생	49
「전남여고」 향기로운 웰다잉 · 김순례 기자	51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5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생애교육 프로그램' 운영	5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운영	5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실시	55
방송통신중학교 '찾아가는 ICT 교실' 운영	56

01

특별기고



시작이 반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길 ----- 05

- 아현중학교 신만섭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가치로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07

- 상동고등학교 한도희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배움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와 앞날을 응원합니다. ----- 09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손찬희 본부장

시작이 반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길

신만섭 | 아현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 신만섭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폭우가 기승을 부리고 뒤이은 더위까지 맹위를 떨쳐 많은 분들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글이 책에 실릴 때 즈음에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지요.

2022년 아현중학교에 처음 교장으로 부임하여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도 겸임하게 되면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는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공부와 관련해 질문하는 것들에 대답을 해주지 못해 입학한 학생, 학창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정으로 비록 늦었지만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용기와 도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맛있는 과자와 떡, 과일 등의 간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급우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분을 돈독히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원격수업으로 학교에도 잘 나가지 못하여 선후배, 급우들을 제대로 사귄 기회가 없고 학교생활의 낭만인 점심시간도 없이 진급 및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는 학교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예전과 같은 학교생활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등교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평일에는 아현중학교의 수업을 하고 주말에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출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그 지글러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책 내용을 보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고, 해결책은 지금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부정하고, 망설이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입학을 하면서 각자의 꿈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으나, 실패에서 배운다면 실제로 진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활도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고 당신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로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도희 | 상동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 한도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낸 3년이란 시간은 그동안 너무도 당연시 여겨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으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렵게 배움을 지속하고자 다시 학업을 시작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안타깝고 힘든 시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 순간순간 현명하게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여러분께서 활기차게 학교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에 열정을 다해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지도하여 학생들과 더 많은 배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무척 가슴이 벅차올랐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제 교직 생활에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진실함을 보고 느끼며 제 교직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큰 방향점이 되었습니다.

배움의 방법과 시기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배움에 대한 간절함과 진심이 더한다면 그 배움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로운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을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학업을 진행하신다면 저는 더 큰 배움의 성과와 보람을 찾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하는 배움의 학우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때론 친구도 되어주고, 때로는 형, 누나, 오빠, 언니도 되어주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배움의 시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로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와 앞날을 응원합니다.

손 찬 희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설렘 가득한 새 학기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올해는 참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모두 건강히 1학기 동안 학교생활 잘 보내셨나요? 새로 사귄 학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며 추억을 쌓아가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뉴스레터 ‘U-반딧불’ 98호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이 회복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실린 여러 학교들의 수업과 행사, 학생 분들의 활동 모습은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우들 서로에게도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의 구성원들에게도 큰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원격수업에, 주말에는 출석수업에 참여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고 계신 학생 분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학생 분들이 학우들과의 추억과 배움의 열정을 더해가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한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학예경연대회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송통신중학교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분들이 직접 만나 재능을 뽐내시고 뜨거운 열기를 나누실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9월 그리고 10월에 반갑게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974년 처음 문을 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내년이면 어느덧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고,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 처음 개교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역사의 또 한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그 이상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발전과 많은 학생 분들에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와 앞날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①

박경리 작가의 문학관을 다녀오다

송영희 |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화창한 날씨에 '토지' 대하소설 작가 박경리(본명 박금이)의 문학관을 다정한 선생님 인솔하에 학우들과 다녀왔습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하동군 평사리'는 유엔 세계 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마을'로 꼽힌 곳이기도 합니다. 교실 안에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야외수업으로 배우는 학습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나는 체육대회

곽 배 숙 |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긴장감이 흐르는 오늘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것도 꿈만 같은데 오늘은 전체학년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단체티를 입고 신발을 던져 링 안에 넣기 등 다양한 게임을 이기겠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옛날 생활고로 인해 운동회 날 김밥도 못 먹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운동회 날은 달랐습니다. 맛있는 김밥과 생수도 먹고 상품도 받았습니다. 전체학년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각 학년별 통합 우승을 다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운동회였습니다.



행촌예술제

강 경 화 |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5월 14일 인천여고 부설 방송고 "행촌예술제"

1부 체육대회와 2부 장기자랑으로 1, 2, 3학년 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멋진 패션으로 입으시고 학생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체육대회 하이라이트 학년 대항 줄다리기에 앞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보였습니다.

우승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는 인천여고 부설 방송고 학생들의 모습은 더욱 멋졌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을 가다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기고

꿈이 영그는 현장

마음을 다룬다

우리의 이야기

세터 소식

5월 21일 오늘 저희 춘천고 부설 방송고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날씨!

술술 불어주는 솔바람이 불어와 수목이 많은 숲속이라 그리 덥지 않아 수목원을 관람하기에 아주 상쾌

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교무부장선생님의 지도 아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한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내에서 실시하던 현장체험학습 때와는 또 다른 흥미와 즐거움, 볼거리 등을 한껏 선사한 행복 가득한 추억여행이었습니다. 1,000년 되었다는 천년향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나무 천연 기념물에서 사진도 한 장 남겨보았습니다.



설레는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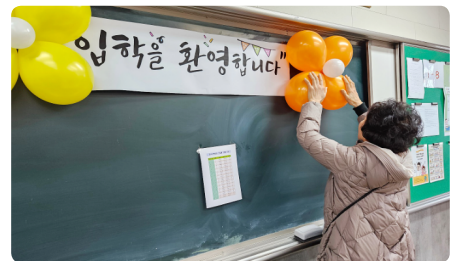
이 순 세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드디어 새 학기를 시작하고 첫 설렘을 안고 학교에 오는 입학식입니다.

풍선 동아리 회원들이 하루 전 학교에 나와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 풍선을 만들고,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님이 바쁘데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와 주셨습니다. 교실을 들어서는 현관문에도 졸업한 선배님이

입학하는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글을 써 주었습니다. 그 글은 운동장에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단상에 큼직하게 두어 신입생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체육관에도 풍선을 달아서 신입생을 맞이했고,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께 선서를 하며 입학식이 끝났습니다. 이후, 신입생들은 단체사진을 찍으며 기분 좋은 학교생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학을 향한 첫 발걸음

이 상 복 | 포항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기고

꿈이 영그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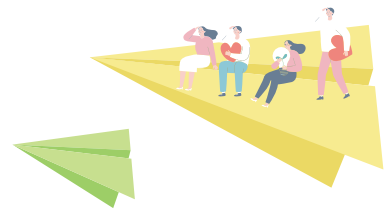
아름다운 만남

우리들의 이야기

센터 소식

3월 12일 포항고 부설 방송고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36명의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111명의 성대한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2학년 110명, 3학년 111명, 총 332명의 큰 학교가 된 것은 선생님들의 노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훈화를 하시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싱글벙글 기뻐하시는 모습과 332명의 학생들 또한 너무 행복한 모습에 큰 체육관이 온통 축복이 가득 찬 듯했습니다. 우리학교 대표와 임원들이 입학

생들에게 겨울 내 추위를 견디며 피워낸 장미를 선물하며 그 아름다움까지 연출했습니다. 2월 4일에 졸업한 학생 46명 중 26명의 선배들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발표하자 신입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고 당겨주면서 대학을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이은순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한 학기를 마치며...

1, 2, 3학년 각 분야별로 상장을 수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추억으로 남길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어 동아리 시간에는 노래를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한 소절씩 가르쳐 주어도 영어를 조금 하는 학우들은 따라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우들은 지금 어디를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1학기 마지막시간은 담임 선생님께서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라는 끝 인사로 수업을 마쳤

어요. 방송중 입학이 엇그제 같은데 3학년 되서 교복을 대여하여 졸업사진을 찍는다는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몽클하고 가슴 벅찬 느낌이 들더군요. 앞으로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50여년만의 수학여행

배 창 환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우리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진학을 못하였고, 때 이른 나이에 잔뼈가 채 여물기도 전에 잔심부름과 판매원, 공장생산직, 건설현장노동직 등의 일터에서 무작정 일하며 성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수없이 소외되며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야했던 경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설움을 가슴에 한으로 안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식을 깨우치는 보람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학업에 증진하는 중입니다. 아득한 그 옛날, 고등학교에 진학한 동갑내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모습을 멍하니 일터에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교련복을 입고 상하이 트위스트를 춘다며 신발바닥이 닳도록 비벼대던 그 모습이 멋있기만 하였고, 수학여행 다녀온 경험들을 늘어놓을 때 신기하여 부러워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동래고 부설 방송고 수학여행날로 제게는 50여년의 세월을 보낸 후의 거제도과 통영으로 수학여행입니다. 50여 년 전에 다녀와야 할 수학여행~ 늦어도 아주 많이 늦었지만, 다양하고 뜻깊은 체험과 50년 전에 해야 할 우정을 주고받으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인솔에 힘써주신 선생님들, 굶은일 도맡아주시신 임원진, 수학여행을 함께한 학우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졸업

김은옥 |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식 있는 오늘 첫 수업은 담임 선생님께서 통지 표도 나누어 주시고, 1, 2학기 교과 우수상 시상 하였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하신 학우들은 너무 행복해 하였고, 반면 수상하지 못한 학우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수상하신 학우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인사말과 함께 귀빈들의 축하인사 등에 이어 졸업생들의 졸업장 및 상품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졸업장을 받는 기쁨에 감동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교문을 나서서 아쉬움에 한 컷,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졸업생 선배들은 더욱더 힘찬 날개짓을 할테고, 남은 우리들도 내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빛나는 졸업장

송 기 은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기고

꿈이 영그는 현장

마음다양만남

우리들의 이야기

센터 소식

2월 4일 홍성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제39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전교 학생회장 외 47명 선배들의 졸업식에는 교장선생님 외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제39회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뿌리로부터 꽃물을 밀어 올리던 그 쓰고 매서운 시간을 자양분으로 삼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홍성고에 입학하여 3년이란 시간 목련꽃처럼 환하게 꽃 등불 밝혀들고

새로운 길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는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성고 교화가 목련꽃이기에 우리도 목련꽃처럼 환하게 피어 찬란하게 빛내며 선배들의 뒤를 따라 건겠습니다.



부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

배 창 환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래고 부설 방송고 학생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부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아동에게 학업 지원금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동래고 부설 방송고 학생회 임원진 26명이 뜻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학생회 임원진은 비록 어려운 가정 환경이지만 부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후원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20년간 후원자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회장은 어린 시절 경제사정으로 진학에 어려움을 경험한 기억을 생각하여 지금까지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고 부설 방송고 학생회장직을 맡아 봉사하면서 학생회 임원진들과 함께 이번 후원성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진학을 못하였는데, 그 중 가난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

대신 일터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행을 이어왔을 것이며, 이 도움을 통해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복성중 축구부 운동복 후원

최지숙 | 광주복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광주복성중 교문을 막 들어서면 오른쪽에 넓고 넓은 잔디가 눈 안에 초록으로 펼쳐져요. 이 초록의 운동장에서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선수와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며 힘든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있어요. 축구부를 이끄는 감독님과 축구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눔을 했네요. 같은 학교와 같은 운동장을 공유하는 본교 축구부는 전국 4강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더운 여름날 뽕송뽕송한 운동복을 전달해서 다들 흐뭇했네요. 이렇게 본교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안겨 줄 수 있었던 일이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이도 행복하다고 전해주었어요.



미술시간 수행평가

노순민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경원중 부설 방송중에서는 지난 5월 25일 미술 수행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가면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제 각각 그림의 형태는 달랐지만 발표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사연과 같은 아픔을 지니고 살았기에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줍은 소녀처럼 발표시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다들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를 표현하며 마음속 응어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미술 수행평가는 시험이라기보다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기자의 그림과 발표 이야기를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애벌레와, 나비, 선, 그리고 꽃과 하트를 그렸습니다. 애벌레 그림은 참으로 긴 시간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도 없었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나비 그림은 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훨훨 날 수 있는 나비가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선 그림은 사는 동안에 원하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원하는 인생도 살 수 없었지만, 나비가 되겠다는 꿈만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온 시간을 표현한 것이예요. 아름다운 꽃 그림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관엽 식물이든 꽃 화분이든 크고 작은 꽃 화분 하나만 있으면 한없이 행복해지며 꽃밭 가꾸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트 그림은 지금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빈 마음이 채워지니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웃으면 나를 보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미소를 짓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변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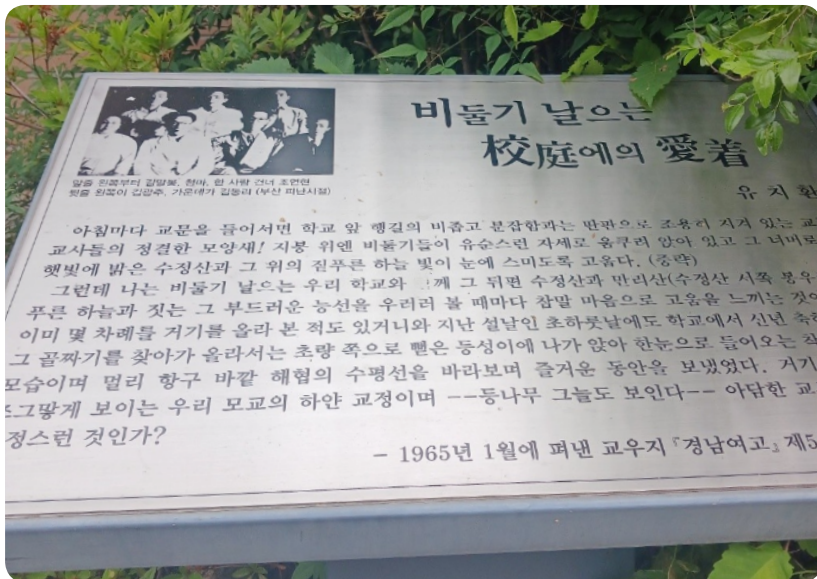
교정

박 정 순 |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우리학교 교목 태산목이에요. 키가 무척이나 크고 커다란 흰 꽃을 아름답리 피울 때면 정말이지 장관이에요. 지금은 큰 꽃도 거의 다 떨어지고 나무만 우뚝 서서 교정을 지키고 있어요. 마치 학교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같아요. 태산목을 보고 있으면 나의 꿈도 태산처럼 자꾸만 커지는 것 같아요.





1965년 1월 교우지에 실린 청마선생님의 글이에요. 교문에 들어설 때면 교문 옆에 있어 자주 글을 읽어 보면서 교문 안으로 들어와요. 비록 얼굴을 뵈는 적은 없지만 시를 쓰시는 청마선생님의 다정하신 인품과 열정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글을 쓰는 재주는 없지만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글 쓰는 흥내라도 한번 내어보고 싶네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연못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아직 마음만은 젊은 날의 소녀같이 살고 싶은가 봐요. 우리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의 모든 학우들도 늦깎이 공부를 하면서 그 옛날의 소녀·소년으로 한번쯤은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늘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고 아련하게 느껴져요. 전국의 학우들 장마철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즐겁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해요.

행동통통(행복·동행·신통·방통) 교내 학예경연대회

이 상 복 | 포항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항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교내학예경연대회를 열어 전국 방송중·고 학예경연대회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지난, 7월에 총 326명(1학년 108명, 2학년 107명, 3학년 111명) 중 출석수업 당일 출석한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했어요. 글짓기 시제는 시장, 고맙습니다, 비, 이모작, 행복이었어요. 캘리그리피 작품은 부채도 준비해서 나눠주었어요. 작은 격려와 칭찬에도 웃음을 내며 기뻐하는 학우들 덕분에 선생님들도 즐거움을 함께 누렸고, 작품이 뜻대로 표현되지 않아

속상해 하는 학우들, 부끄러워하며 작품을 숨기던 학우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가득한 모습이 보였어요. 행동통통 교내 학예경연대회는 문예(시, 수필), 캘리그라피, 서예(한글, 한문), 회화(소묘, 수채화), 음악(국악, 가곡, 기악), 영어말하기로 진행되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열정과 재능을 뽐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내 정화 활동

김혜경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특별기고

꿈이 영그는 현장

제주제일고 부설 방송고는 매년 교내 정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회 임원들이 모여서 학교 내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기분까지 좋은 하루였습니다. 학생회의 교내 정화 활동으로 인해 본교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원진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깨끗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내 정화 활동에 힘쓸 거예요.



마음다양만남

우리들의 이야기



센터 소식

03

아름다운 만남



재주꾼을 만나다

노순민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반갑다! 친구야 ① - 김외숙 학우

경원중 부설 방송중 1학년 2반 김외숙(65) 학우를 만나기 위해 학우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김외숙 학우의 집에는 드럼을 비롯한 갖가지 악기들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이 채워져 있었어요. 김외숙 학우는 눈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히 키웠고, 미용사면허증(1990년), 요양보호사자격증(2009년), 가수인정서(2016년), 노래강사자격인정서(2016년), 실용음악강사자격증(2018년) 고고장구지도사(2018년), 국악노래강사자격증(2021년), 예술문화1급(2021년) 등을 여러 해에 걸쳐 취득했고, 대형 운전면허증까지 겸비한 재주꾼이에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력서를 작성할 때마다 아픈 과거가 생각나고 초등학교 졸업을 최종학력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학업을 하며 다양한 재능을 키워온 멋진 이외숙 학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기자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반갑습니다. 저는 경원중 부설 방송중 1학년 2반 김외숙입니다. 드러낼만한 것도 없는데 기사를 쓰신다니 부끄럽네요.

기자 많은 재주와 자격증을 가지셨는데 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학생 부끄럽지만 저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힘든 시기라 입 하나 덜기 위해 부자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남편은 지병이 있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겨를도 없이 밥벌이를 해야 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식당과 미장원을 겸하기도 하면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보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아들, 딸 모두 바르게 성장해서 제 밥벌이를 하고 내 집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일에만 매달려 살다보니 내 날이다 싶은 날도 없고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며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네요.

기자 장구와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일주일 두 번 정도 장구를 가르치고, 진해루 해변가요축제나 마산 해양공원축제가 있을 때 아랑장구 공연도 하고, 초청가수로 민요와 가요도 부르며 1달에 7~8번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주로 노인들이 기거하는 양로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 좋은 점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취미생활도 겸할 수 있어서 좋고, 남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공연을 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과 공연을 하실 생각인지요?

학생 예, 마음은 언제까지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폐 선암 수술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수술을 연이어 4차례나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몸과 마음에 소진이 와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뜻 그만두기가 싶지 않네요.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학생 먹고 사는 일도 힘든 일 중에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력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 슬펐어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 또는 회사에 입사할 때 등등 이력서를 써야할 때가 많은데, 최종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쓰기가 매번 자존심이 상했어요. 얼마 전에 통장이 되었는데 그곳에도 최종학력을 적으라고 해서 속상했네요.

기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방송통신중학교의 후배가 될 예비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당당하게 쓰고, 사람들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시간이 부족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부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부딪치면서 경험을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학교생활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무상으로 모든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우님이 지향하는 중·고등학교 졸업장 꼭 받으시고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머뭇거리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을 뚝뚝하게 밝히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원중 부설 방송중 노순민 학생 기자였습니다.



김외숙 학우님



국제기능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를 만나다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② - 조정연 학우

2023년 3월 25일 프랑스 메시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자전거 조립부문에서 영광의 동메달을 수상한 춘천고 부설 방송고 2학년 2반 조정연 학우를 만나러 자전거 수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우선 프랑스 메시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동메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학생 네, 축하해주시고 저의 수상을 한국교육 개발원 반딧불 소식지에 올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기자 자전거 수리를 오래 이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언제부터 자전거 수리를 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저는 1955년 3월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어린 나이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공장에서 용접과 자전거 수리를 배웠습니다.



기자 생활하시는 중 가장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학생 한 회사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자전거점 창업을 하고 결혼과 함께 자녀들도 생겨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30년 전(39세) 자전거용접 도중 불꽃이 눈에 튀어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기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학생 한동안 방황하며 술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번뇌!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 얼굴이 무지개처럼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용기 내어 손에 공구를 잡고 자전거 수리와 용접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기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요?

학생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은사님께서 저 보고 이런 올림픽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씀에 용기 내어 밤새 자전거 탈부착 연습과 올림픽 꿈을 키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기자 국내 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로 합격하여 프랑스 메시로 가셨는데요?

학생 우선 강원도대회 우승과 함께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3년간 연기된 경기로 1년에 3명씩 7년 21명이 최종 선발전을 치루고 1위로 선발되어 글로벌 숙련공단에서 3개월의 합숙훈련을 거쳐 프랑스 메시로 떠났습니다.

기자 프랑스 메시에서 경기는 어떤 방식의 결선이었나요?

학생 27개국을 4개조로 나누어 예선을 통과한 16명이 준결승을 치루고 최종 결선에서 8명이 결선하여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메달 획득 후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기자 학교공부도 열심히 상위점수를 획득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학생 하고 싶었던 공부이기에 자전거 대리점을 하면서 밤새워 가며 영상강의를 듣고 들으며 교과서를 들고 잠들기도 하고 수많은 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우승으로 우리 학교는 물론 우리나라를 빛낸 기능 올림픽선수로서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학생 늦게 배운 공부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의 명예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우리 학교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었습니다. 우선 마을 봉사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기자 기능 올림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학생 네, 제 꿈을 키워준 보름달이라 생각합니다. 제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둠을 밝혀준 보름달 말입니다.

기자 선·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학생 선·후배 학우님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힘들다 움츠리지 말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고귀한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는 학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자 다시 한 번 메시 올림픽 수상을 축하드리며 장시간 인터뷰에 응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건승과 앞으로 바라시는 소망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고 부설 방송고 최동순 학생 기자였습니다.

조정연 학우님



평창에서 통학하는 학우를 만나다

정순미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③ - 이임숙 학우

우리 학우들 중에 멀리 평창에서 대중교통을 세 번이나 갈아타시면서 다니는 열정적인 학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자 학우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저는 깊은 산속 평창에서 등교하는 원주고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이임숙입니다.

기자 네^^ 반갑습니다.
원주고 부설 방송고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셨는지요?

학생 횡성에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방송중 학생모집 포스터를 보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원주고 부설 방송고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자 아~ 네 그러시군요. 중학교부터 다니셨군요. 학교에 다니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배우지 못한 자책감에 주눅 들어 살았었지만 지금은 자존감도 생겼고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5시 알람소리에 잠이 깨서 준비하고 차를 세번씩 갈아타면서 통학하고 있지만 설렘과 함께 학우들을 만나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즐겁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 만학도생이지만 여고생 학창시절을 만끽하며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부이기에 주경야독의 어려움이 실감나고 시간이 없어 아쉽습니다.

기자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평창이 원주에서 좀 먼 편인데요.
교통도 불편하시고 대중교통을
세번이나 갈아 타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결석도 안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방송고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학생 할머니학생을 가르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스승님들의 은혜와 다정하신
그 모습 제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기자 어쩔 마음이 참 고우십니다.
그럼 학우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학생 저는 건강만 허락된다면 대학도 진학할
계획입니다. 저의 욕심일까요? 앞으로
건강하고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욕심 아닙니다. 꼭 대학에 가지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또 앞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될 예비 후배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학생 아는 것이 힘!! 시작이 반이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라고 해주고 싶네요.

기자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배움에
한이 되지 않게 시기를 놓치신 분들께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학생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 멀리 볼 수 있게
해 준 망원경 같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기자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학교생활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꼭 대학에 진학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원주교 부설
방송고 정순미 학생기자였습니다.

04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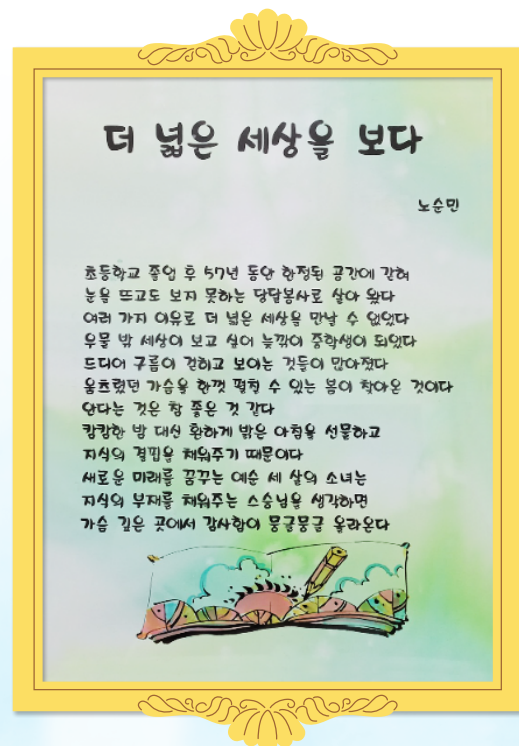
시 ----- 41

수필 ----- 45

더 넓은 세상을 보다

노순민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후 57년 동안 한정된 공간에 갇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로 살아 왔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없었다.
 우물 밖 세상이 보고 싶어 늦각이 중학생이 되었다.
 드디어 구름이 걷히고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
 움츠렸던 가슴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봄이 찾아온 것이다.
 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캄캄한 밤 대신 환하게 밝은 아침을 선물하고
 지식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예순 세 살의 소녀는
 지식의 부재를 채워주는 스승님을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뭉글뭉글 올라온다.



고목에 꽃이 피면

배 창 환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목에 잎이 피면
기적이 일어난거지.
교정 정원 백년고목 잎을 피우고
교정 교실 백발학도 꿈을 피운다.

농익은 자태에 꽃마저 피운다면
그향기 더없이 농염하겠구나.
과하여도 괜찮다,
고목에 꽃이 피면.



인연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어쩌면
우리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라 할까요.

만학이란 이름표를 달고
늦은 배움의 문턱 들어설때에
홀연히 교실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를 품어 맞아주신 선생님.

지구를 한 바퀴 돌린
정든 시간들속에서 맺어진
저희 25명의 우정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사제지간이란
인연의 끈을 매어놓고
홀연히 떠나가시는 선생님.

우리들 기억 속에
오래 문지르고 반짝이다
톡톡 터지기도 할 은혜의 추억 하나
추가한 우정 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 우정 모아
선생님 가시는 발자국마다
은혜의 꽃송이 뿌려 드리오니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평행선

김 배 숙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녀와 야채 샵집에 갔다.

야채 바구니에 얼룩지고 뜯 깎인 한 장.

어머 애는 버려야겠다.

팔팔 끓는 육수에 모기장처럼 얇은 소고기

퐁덩 퐁덩 집어넣던 그녀

핏물 가시기도 전 꿀떡꿀떡 삼키며 하는 말,

고기도 씹어야 맛있고 인생도 씹어야 맛있지.

겨울바람 채근에 꺼내놓은 사연

그녀의 이 사이에 낀 붉은 핏물처럼

입안을 붉게 물들일 만큼 쏟아 놓은 속내

평행선 같은 고부갈등

이십여 년 고부 살이

그녀만큼이나 붉게 물들었던 나

어머님과 이별 후

독주보다 더 독한 그리움

떠날수록 더욱 고여 드는 슬픔

사랑은 보내는 자의 깨달음인 것을

돋보기를 쓰면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누렇게 뜯 깎인 육수에 담그며

평행선 위 서있는 그녀를 본다.



인생에도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

노 순 민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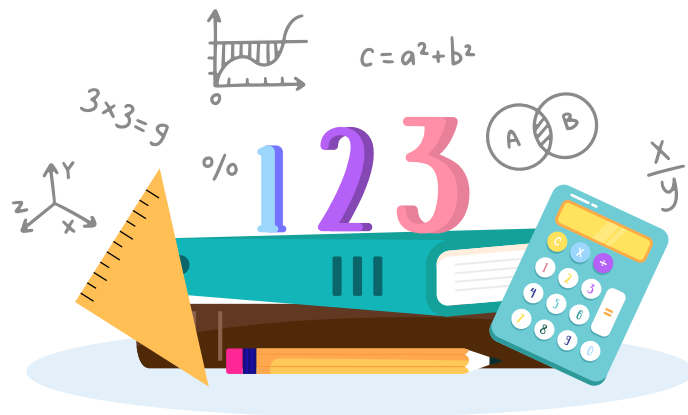
인생살이에도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

예순살이 넘어 중학교에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수학문제를 접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문제를 풀었고, 수학공부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최소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혼돈하지 않게 되었고,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았던 방정식 문제도 풀 수 있게 되었다.

문득 수학보다 쉬운 공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고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답을 찾기까지 고민

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지만, 공식과 답이 정해져 있어 결국에는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생살이에는 공식도 없고 답도 없다. 스스로 공식도 찾고 해답도 찾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막막하고 답답한 일도 많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다. 인생살이에도 수학처럼 정해진 공식과 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없이 영켜 있는 인생 여정에서 접하는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이 순 호 | 상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시작이 반이다."

나이 들어 내가 선택한 상동고에서 반 번호 배정 받고 새 교과서도 받고 담임선생님, 학우들 만나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수십 년 만에 공부하느라 긴장한 성인들, 운동 하면서 공부하는(김포FC) 선수들, 전국에 모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가족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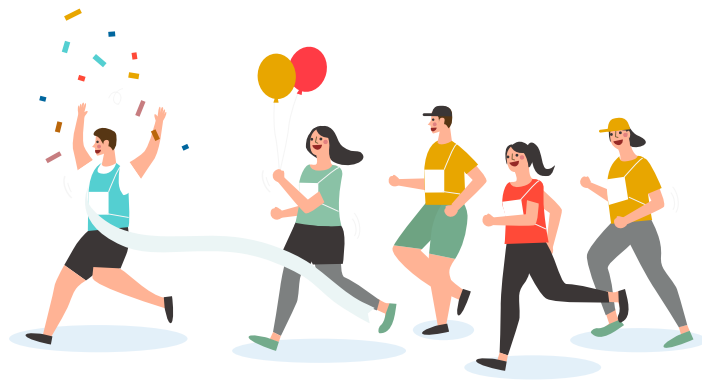
처음엔 패기 넘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나이 들어 공부하는게, 수십 년 만인지라 낯설고 서러웠지만 기죽지 않으려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젠 나이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살기 위해 큰 꿈을 꾀본다.

비록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해 깨진다 해도 그 조각 또한 클 테니까..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인생의 일부가 아닌 인생의 전부란 생각이 든다. 인생의 덤은 없다.

세상에 쉬운 것도 없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다. 마음만 젊다면 영원히 청춘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 인생 이막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도전한다면 미래를 향한 나의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이제 저도 춘천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영 자 |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어느새 나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춘천여고 부설 방송고에 입학하고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만 해도 중학교 3학년 선배님들 졸업하시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언제 나도 선배님들이 가시는 춘천여고 부설 방송고에...

과연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무척 그 길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새 벌써 입학하고 영상 수업을 듣고 있지 않겠어요.

세월은 발도 안 달렸는데 어찌 그렇게 빨리 따라 왔을까요~

입학식 하던 날!!!!

그 전날에 아무리 잠을 청해 보아도 야속하게도 뜯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가 춘천여고 가는 것이 사실일까!!!

하며 이 밤이 빨리 갔으면 하는 어린애처럼 철부지 같은 마음도 들더군요.

입학식 날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앞 큰길에서 우회도로 돌아서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여 잠시 생각에 잠겨서 보았습니다. 정말 맞는 거지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있는 것이 하며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교실은 3층 1학년 1반 18번, 복도 입구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와~ 이젠 정말 춘천여고 학생 맞구나 이렇게 얼굴에는 세월 흔적이 가득한데 고등학생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9시 30분에 전교생 모두 생활관으로 입학식을 하기 위해 선배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하시는 교무부장선생님 다녀가시고 담임 선생님 인사말과 반 친구들과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임원 선출까지 간단명료하게 마무리 하고 이렇게 학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

장학재단에서 보라색 장미를 준비해 주셔서 한 송이씩 선물을 받아주고 생활관에서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들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교장선생님께서 "큰 강을 만났으니 큰 꿈을 키우시고 멋진 춘천의 여인이 되시길 바라오며, 신입생으로 용기 내어 오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멋진 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책가방

서문순 |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눈물 꽃이 흩날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문장들이 흘러내린다. 뱃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이고 있던 거품을 씻어내는 봄비. 세월은 톱니바퀴를 굴려 추억 몇 페이지를 그리고 나서는 봄의 책장을 사선으로 접는다. 긴 기다림이 자꾸만 등 뒤로 멀어져 가고.... 단 하나, 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몸 장기 일부가 되어 때때로 나를 흠뻑 적시는 엄마의 모습이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쓸 때마다 엄마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밥상을 펴고 연필심에 침을 묻어 가며 글자를 익히던 엄마. 엄마의 환영(幻影)이 자꾸만 내 눈 속에 어른거린다.

엄마는 서당 집 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선 여자가 글을 배우면 팔자 사나워진다고 하며 글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 평생 배움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엄마. 호롱불 밑에서 콧등 그을리며 딸이 배운 국어책을 펼쳐보던 엄마. 그렇게라도 배움의 한을 푸셨던 게 아닐까.

그런데 왜 나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겪어보고서야 그것이 엄마를 얼마나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홀로되신 엄마는 가슴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을까.

경찰서 게시판에 몇 월 며칠 나를 잡아간다고 공고가 나붙어도 그 글을 읽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사람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딸에게는 공부를 많이 해서 불펜으로 먹고살라고, 그 말을 본인 꿈인 듯 말씀하셨다.

엄마는 살림에 보태려고 봉제공장에 다니셨었다. 엄마의 연세에 글을 읽고 쓰고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공장관계자는 엄마에게 보조 일을 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숫자를 세고 글자를 읽고 쓰고 하니 놀랐다고 한다. 그 후 엄마는 물건 입고와 출고장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때에는 시대적으로 한글과 산수만 하여도 대단하게 여겼던 모양이었다.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 딸에게 하셨던 모습이 기억 속에 선명하다.

엄마한테는 낡은 책가방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쓰다가 더는 쓰지 않게 된 책가방이었다. 그 안에 딸이 배우고 쓸모없어진 국어책과 노트, 1에서 100까지 쓴 종이와 연필이 들어있었다. 딸의 국어책을 옮겨적었던 엄마, 지금으로 말하면 평생 필사로 공부한 셈이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처럼 시인이거나 작가가 되었을까 싶기도 하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 한 가지는 허리에 줄을 매고 몸뚱이 속에 넣고 다니던 손수 만든 돈주머니. 그리고 방 귀퉁이에 앉아있는 낡은 책가방이었다. 나는 그 책가방을 보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엄마에게는 소중한 물건들, 그러나

그때 우리 4남매는 그 유품을 챙길 만큼 철이 들지 못하였다.

딸아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서 힘들 때마다 손자를 친정에 맡겼다. 그리고 어느덧 손자는 네 살이 되었다. 손자는 할머니 방에 있는 책과 연필을 가장 궁금해하였다. 육아하면서 손자가 TV, 만화에 빠져있을 때를 틈타 책을 읽거나 글 쓰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일까. 손자는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책을 가져다 소파에 앉아 할머니처럼 읽는 흥내를 낸다. 볼펜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퍼놓고는 할머니가 판독할 수 없는 문자를 써놓기도 한다. 애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하더니, 손자가 할머니 행동을 흉내내었다.

우리 엄마도 나에게 거울이 되었던 걸까. 나도 엄마처럼 책과 글을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손자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생각해본다. 엄마의 낡은 책가방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노트북의 자판을 두드리며 내 꿈을 키워가듯, 낡은 책가방 안에서는 엄마의 꿈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다.



향기로운 웰다잉

김 순 례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5월 하반기에 접어드는 등교 일에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창체시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생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웰-다잉'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웰-다잉'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기 이전에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수업은 유난히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저와 같은 60-70대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강사님은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실감나게 강연해주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웰-다잉'을 맞이하기 위한 발달과업이 존재하였습니다. 중년기에는 건강 악화와 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년기에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



난 것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강사님의 말에 만족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내 인생의 웰다잉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는 강사님 말씀에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0남매 맏며느리 삶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고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

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어렸을 적은 정말 힘들었지만, 나이를 먹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소원을 이루었다며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은 언젠간 꼭 맞이해야 하는 관례이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기만 했던 죽음을 수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 54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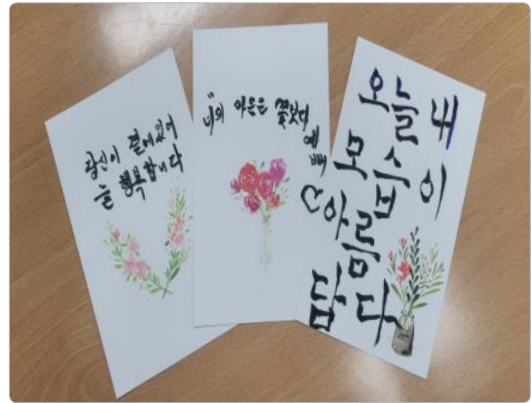


소식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생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애설계 7대 영역 중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0대 및 성인 학생들의 연령대 분포에 따른 관심사를 고려하여, 건강, 관계, 학습, 여가, 직업의 5대 영역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0대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직업, 여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애설계 수립 및 진로 설계를 위해 건강, 관계, 학습, 여가, 직업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중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9개교 23그룹의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 중 12개교의 51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통해 학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성·진로 온라인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성검사, 적응역량검사, 진로검사 총 3종의 온라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형별 검사 결과 확인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과 적응역량을 파악하여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이해하여 졸업 이후, 진로 선택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검사 실시를 돕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중 6개교의 13그룹의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 중 5개교의 19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성·진로 온라인검사 학교 방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학습경험인정제는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과목이 많으면 최대 1년의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과목 이수 또는 조기졸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교사와 제도 운영에 관해 협의해 왔다.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은 신청 학교(방송통신중학교 10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식4

방송통신중학교 ‘찾아가는 ICT 교실’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들의 IC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ICT 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ICT 교실」은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ICT 기기의 기초 활용법과 방송통신중학교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의 학습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 방법, 윈도우 및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교육은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중 희망하는 19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조사와 컴퓨터 및 인터넷 이해,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이용, 스마트폰 활용의 3회차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기초 ICT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시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원격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23 VOL. 98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목포중앙여중 송영희 기자, 광명중 곽배숙 기자,
남춘천중 이순세 기자, 홍성여중 이은순 기자, 원주중 김은옥 기자,
광주북성중 최지숙 기자, 경원중 노순민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인천여고 강경화 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포항고 이상복 기자,
동래고 배창환 기자, 홍성고 송기은 기자, 경남여고 박정순 기자,
제주제일고 김혜경 기자, 원주고 정순미 기자,
상동고 이순호 기자, 전남여고 김순례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경원중 김외숙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춘천고 조정연 학생, 원주고 이임숙 학생, 춘천여고 이영자 학생,
홍성고 김배숙 학생, 홍성고 서문순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편집장 손찬희(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편집총괄 황은희(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편집인 김수진, 김자현, 류현아
(이상 방송중·고운영센터 기획·홍보팀)

한 학기 동안 기사를 게재해주신 모든
2023학년도 방송중·고 48명 학생기자와 재학생 분들,
수고해 주신 방송중·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